

매튜는 웃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좋은 의미로만 생각해왔다. 어려서도 줄곧 미소를 지었고, 동생들도 어른들도 모두 그런 매튜를 마주 웃으며 대해주었다. 호의를 얻기 가장 쉬웠으며, 그 또한 웃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이 웃는 만큼, 다른 이들도 웃었으면 했다. 그렇기에 매튜에게 웃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자, 칼이었다.

이곳에 입학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는 습관적으로 지어온 웃음이 이제는 의식적으로 짓게 되었다. 그걸 깨닫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다른 이들의 호의와 웃음이 어떠한 것인지 어렵게나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주 어렵듯이.

그렇기에 지금의 올리브유의 웃음기 섞인 목소리도, 활짝 짓는 표정도, 아주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매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매튜는 슬퍼졌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사실 최근의 매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왜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어쩌서? 안타깝게도 매튜는 어렸고, 그 원망의 대상은 절대 제가 좋아하는 이들에게 가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매튜는 세상을 증오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에게 그 화살이 향했다.

“……그 친구랑 싸운 거야? 싸우다가 다친 곳은 없었던 거지?”

매튜의 눈은 오로지 올리브유에게 향해 있었다. 목덜미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내리는 것을 눈으로 쫓지도 않았다. 그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자상했지만, 평소보다 그 색이 짙었다. 정정한다. 매튜는 지금 화가 나 있었다. 에스드라의 어머니가 주고 가셨던 두통약을 한 주먹 씹어 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그리고 끝내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입에 담았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매튜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있었다. 말하는 것도 어쩌면 그가 알지 못하는 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걱정하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어느 누가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겠는가? 그걸 담아낸 목소리가 이리도 싸늘한데. 그곳에서 만난 예전의 친구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곳은 이제 올리브유에게 관계없는 곳이라고 했다. 집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매튜에게 그 친구라는 이를 존중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표정이 사라졌다가 나타난 환한 웃음이 이상하다는 것을 매튜는 알았다. 그런 제 소중한 친구가 안쓰러웠다. 네가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걱정 없이, 그저 언제나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며, 이야기나 돈으로 물건을 사고팔며 함께하길 바라는데. 아랫입술을 잠시 깨물었다. 분노 속에서도 잃지 않은 친구를 향한 마음이 날카로워진 그의 생각을 덮었다. 여전히 뻘쭙하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까지만.

차마, 졸업한 이후에는?—이라고, 물어볼 수 없었다. 괜히 손가락만 폼지락거리며 네 웃음에 보답하듯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다. 다행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니 되게 기쁘네. 사실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우리들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렇기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이야.